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역적 죄인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고, 악독한 고문에 못 이겨 끝내 감옥에서 운명했던 억울함은 425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늘을 찌르는 원통함으로 남아 있다. 광주의 아들이요 무등산의 사나이였던 김덕령(金德齡)。 그는 1567년에 태어나 겨우 29세이던 1596년에 옥사했다. 길고 긴 시간이 흐른 오늘 '김장군전'(金將軍傳)이라는 글을 읽으며 억울하고 원통한 그의 죽음을 새롭게 알아보면서 천추의 눈물을 다시 흘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런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던 말인가.

'김장군전'은 조선 숙종 때의 학자요 판서에 대제학을 지낸 서하(西河) 이민서(李敏叙, 1633~1688)의 작품이다. 김덕령 장군의 일생을 가장 소상하고 바르게 기술한 역사적인 글이다. 이민서는 김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81년 쯤인 1677년 광주 목사로 부임한 뒤 김 장군의 아우 김덕보가 기록한 유사(遺事)를 참고하고, 광주 사람들이나 후손들의 이야기 등 자료를 수집하여 신빙성이 높은 전기를 저술하였다. 한자로 1700여 자가 넘는 장문으로 웅혼한 문체에 유려한 글솜씨는 대제학을 지낸 문장가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 준다.

김장군은 광주의 무등산 석저촌 출신이고 대대로 유

충장공 김덕령의 억울한 옥사

학을 하던 집안의 후손이라 말하고 향교에 가서 유학 공부에 열중하였음도 말했다. 특히 어려서부터 용력이 뛰어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행위를 했음도 기록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이겨낸 이야기, 큰 칼을 차고 큰 말을 타며, 무등산 일대를 달려가던 모습을 그대로 적었다.

전설적인 무용담을 세세히 적어 얼마나 뛰어난 장수의 기질이 있었음도 자세히 기술했다. 탁월하고 특이한 이인(異人)의 모습으로 항상 한 쌍의 철추를 늘 좌우에 차고 다녔는데, 철추의 무게가 각각 백 근이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2백 근의 무게를 들고 나는 듯이 달려다녔다니 그 근력과 용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알 만하다.

때는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장군의 형님 김덕흥은 고경명 장군을 따라 의병으로 전투하다 목숨을 바친다. 때마침 장군은 모친상을 당해 집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담양부사 이경린과 장성부사 이귀 등이 장군의 뛰어난 용맹과 위력을 알아보고 의병을 일으키기를 권유한다. 이에 불효의 죄를 면하지 못한다면 서도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의 싸움에 가담하였다. 김장군의 능력을 인정한 나라에서는 형조좌랑을 제수하고 익조장군·충용장군 등의 칭호를 부여해 애적의 섬멸을 지원하였다.

큰 싸움도 없이 왜적은 김장군의 이름만 듣고도 모두 달아났고, 얼마 뒤 화의(和議)가 논의되면서 전투를 멈추게 된다. 그리고 전공을 크게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뛰어난 충의와 용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율을 엄하게 하느라 군율을 어긴 사람을 처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

더니 끝내는 충정도 홍산(현 부여)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키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장군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억없는 무고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된다. 이어 국문의 고문으로 옥에서 목숨을 버려야 했으니 천하에 그런 억울함이 어디에 또 있었겠는가.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370여 년이 된 1970년 대 초. 장군의 묘소를 이장하느라 파묘를 했는데 깊고 깊지 못한 장군의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하니 이 또한 무슨 일인가. 후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관을 찾아내 관 뚜껑을 열자, 장군의 부릅눈 눈이 생전의 모습대로였고 관이나 수의 그대로인 미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면 400년이 가깝도록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던 말인가.

장군은 죽기 전에 '촌사가'라는 시조 한 수를 남겼다. "촌산(春山)에 불이 나니 / 못다 핀 꽃 다 불붙는다 / 저 되 저 불은 끝 물이나 있거니와 / 이 몸에 내 없는 물 일어나니 끝 물 없어 하노라." 기가 막히고 원한이 사무치는 내용이다.

정의와 진실은 뭉칠 수 없다. 조선 현종 때에 이르러 장군의 억울함이 풀려 신원이 되고 벼슬이 내려졌다. 정조 때에 이르러 석저촌을 충효리라 호칭하게 했고 장군에게는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나중에 충장사라는 그의 충의의 의혼을 기리는 사당도 건립되었다. 이민서는 전(傳)에서 당시 서자 유성룡의 '장군이 역모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는 말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광주의 큰 거리는 충장로다. 그의 의로움을 기리자는 뜻이다. 충장공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는 광주의 의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꿈꾸는 2040



오태화
위민연구원 운영위원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우리가 누렸던 많은 일상은 더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공기마저도 함부로 마시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많은 것이 무너졌고, 변화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끔찍하게 외롭다. 혼자임을 절실하게 느껴야만 하는 시대, 사람과의 교류가 절실해진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새로운 시대이다.

감염성이 높은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우리의 모든 대면 행위가 제한되도록 만들었다. 얼굴을 마주 보며 친구에게 일과를 늘어 놓고, 여유롭게 밤공기를 마시며 함께 집으로 걸어가던 시간은 어느새 까마득하다. 우리가 누려온 모든 일상은 그렇게 무너졌다.

전염병 대응행 이후에 닥쳐온 상실의 일상은 우리 모두에게 가혹했다. 최근 학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우울증 즉 '코로나 블루' 증상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극단적

홀로 맞이하는 마지막

선택의 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코로나가 불러온 사회적 고립감과 무너진 경제력으로 인한 상실감이 무기력증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는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마저도 차단당한 채 고독을 온몸으로 느껴야만 하는 혼자 사는 가구원들에게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고독사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외로운 이들이 배어 사무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홀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더는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년과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원들 모두가 저마다의 외로움 속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고독사' 현상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 모색이 절실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캠페인의 측면이나 자원봉사의 측면에서 벗어나 취미를 함께 하고 소통과 교류를 일상의 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1인 가구원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 있는 마을 단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의 차원에서 이익을 도모하고 경제적 활로를 열어 줄 방법

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마을 내 공공 돌봄의 지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등 공공 일자리보다는 소규모의 커뮤니티형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내 1인 가구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 업계에 대한 지원과 1인 가구 우울증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문화 공연 활성화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야외 공연 형태의 커뮤니티 문화 공연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원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전반에 대한 범세대 비대면 커뮤니티케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 있다. 1인 가구원들 을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해 가능한 이들은 비대면 위주의, 불가능한 이들은 대면 위주의 심리 건강 관리 및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를 공공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원들의 심리 상태와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파악함으로써 고독사 및 극단적 선택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외로운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다. 이것은 외면해도 될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곁의 누군가,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의 이야기일 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외로움과 눈물 섞인 선택을 외면하지는 말자. 한 사람이라도 살려 보는 것에 사회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확신한다.

기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 전시장 건립 왜 필요한가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한 국가의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부터 나온다. 경쟁력 있는 도시는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도시 활성화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된다는 말이다.

광주시는 도시 경쟁력 확보와 도시 재생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두고 집중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고리는 이제 막 광주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첫 걸음을 댄 상태이다. 최근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전시 컨벤션 마이스(MICE) 산업은 광주시의 관광 활성화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이스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의미한다. 마이스는 '글썩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코로나19 발생 직전(2019년 기준) 광주시는 컨벤션 140건,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5671건을 유치하여 광주를 방문한 참가 인원이 111만여 명에 달했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5823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남 지역 마이스 산업의 전초기지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설립 16주년을 맞았다. 호남권 유일 컨벤션 시설인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코로나 발생 직전(2019년 기준) 5년간 가동률이 71%에 달하고 있다. 이는 사전 준비와 철거 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가동률은 100%에 육박함을 의미한다. 국제컨벤션협회(ICC)에서 제시한 컨벤션센터 적정 가동률이 65%인 점을 감안하면 초과 운영되는 상황이다.

가동률 초과 현상은 실제 전시장 부족 현상으로 입증되고 있다. 현재 센터는 가변형 전시장 5개 홀 1만 2000㎡(3600평)를 운영 중에 있으나, 보통 전시회는 평균 1만㎡(3000평) 이상의 면적이 요구돼 하나의 행사를 개최하면 다른 행사는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컨벤션 유치 실패와 행사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나주시로 이전한 후 한전 주최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가 센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한전에서 요구한 전시장 규모 2만㎡를 충족하지 못해 매년 행사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한국제측산박람회(KISTOCK)와 국제LED엑스포, 세계보안엑스포 등 10여 개 국제 박람회의 경우 2만㎡ 면적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어 행사 유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 전시장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에 추가 전시장 확

보가 필요하다. 영남권의 경우 대구(EXCO)와 부산(BEXCO)에 6만㎡ 규모의 전시장을 운영 중이지만 4만㎡급 전시장을 대구와 부산에 추가 건립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호남과 영남의 전시장 규모 차이가 9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민선 7기 광주시는 '광주 도심 융합 특구 조성 사업'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미래 수요를 대비해 더 이상 전시장 확보를 미룰 수 없다.

최근 광주시는 추가 전시장 확보를 위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안'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제2 전시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서 전시장 2개 홀 1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호남권에도 비로소 최대 2만㎡급 대형 전시장을 갖추게 되어, 국제 모토쇼나 대형 패션쇼 같은 다이나믹한 행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한 사회학자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가 끝난 후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되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명실상부한 전시 컨벤션 산업의 메카로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내 마이스 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社說

북구의회 리모델링 '호화판' 이래도 되는가

최근 청사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광주 북구의회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밀정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내다 버리고 수백만 원짜리로 교체하는가 하면, 2인 1실로 사용하던 의원 사무실도 혼자 쓸 수 있도록 넓혔기 때문이다.

북구의회가 의원실과 본회의장 등의 가구·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모두 1억 86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청사 리모델링 예산 15억 8900만 원과는 별도다.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의원들이 사용할 책상으로 110만 원짜리 14개를 구입했는데, 이는 조달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역용 가구' 중 최고급이었다.

특히 본회의장 내 의장석과 의회 사무국장석의 책상을 바꾸는 데만 1480만 원을 들여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사무용 의자·책장·회의용 탁자·문서파쇄기·레이저프린터 등 사무용품은 물론 벽걸이TV·냉장고·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교체하는 데 1인당 700만 원이 넘

는 예산을 투입했다. 다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4명) 사무실의 경우는 기존 집기를 그대로 쓰기로 했더니 그나마 기록하다고 해야 할까.

북구의회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구 주민들과 민감한 민원 대화를 나누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2인 1실로 사용하던 의원 사무실도 1인실로 바꿨다. 하지만 북구 공무원들의 경우 청사가 비좁은 탓에 딱따구리 불어 일하거나 일부는 외부 상가의 사무실을 빌려 쓰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최근 일부 의원이 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이권을 챙기는 등 잇단 비리로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민생고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평평 몰 쓰듯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부활될 지 3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의원들 스스로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소방차 길 터 주기' 실천 많은 생명 살린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 터 주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출동 차량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방차가 보이면 비켜 주기는커녕, 멈춰 서고 막아서기까지 한다.

광주시 광산소방서가 엊그제 실시한 '소방차 길 터 주기' 훈련에 본보 기자가 동행해 보았다. 이날 광산소방서를 출발한 소방차 네 대는 출발 직후부터 버티고 있는 차량에 발목을 잡혔다. 소방차 차량 앞에 '길 터 주기 훈련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소방차 이동 차선으로 넘어와 멈춰 섰고, 시내버스는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소방차 이동을 막

아섰다.

시장 주변에서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지만 꼼꼼거리는 차량 하나 보이지 않았다. '모세의 기적'은 커녕 나 몰라라 하는 운전자들만 가득했다. '길 터 주기 훈련'은 화재 진압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양보 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사시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를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훈련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택시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소방차 이동 차선으로 넘어와 멈춰 섰고, 시내버스는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소방차 이동을 막

無等鼓

아카데미상 여섯 개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미나리'가 연일 화제다. 아예 누적 관객 수 80만 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첫 한국영화 100만 관객 돌파도 예상된다. 할머니 역을 맡은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엔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제한적인 소재 때문에 국내 관객들의 공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미국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인 데다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선입견도 있었다. 한 데도 보란 듯이 흥행가도를 치닫고 있다. 한국 영화가 아니면서도 한국 영화인 '미나리'의 흥행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삶의 타전을 옮긴 이민자들의 모습이 비단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는 '뿌리내리지 못하는 삶'을 깨닫는 '마음의 언어'를 이야기한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인 기억과 경험은 결국 공감의 언어로 수렴된다. 그는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당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미나리는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 그 가족은 그들만

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미국의 언어나 외국어보다 심오하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이며 나도 그것을 배우고 몰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음의 언어'는 사실을 뛰어넘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 아웃사이더의 삶을 견뎌야 하는 이들의 고통을 감싸 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 말이다. 영화에서 윤여정은 시종일관 할머니 특유의 언어로 마음을 담아 말한다. 특히 그녀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를 손자에게 설명하는 대목은 깊은 여운을 준다. "미나리는 잡초처럼 아무데서나 자라나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코로나로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일상이 막막하다 못해 더러는 뿌리째 뽑히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마음의 언어는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의 고단함과 쓸쓸함을 다독여 준다. 마치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그 어디에서나 뿌리를 내리는 미나리처럼. 그것은 해독과 정화의 다른 이름이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